

보 도 자 료



- ◆ 2025. 2. 14. (금) 배포
- ◆ 총 6쪽 (본문 2쪽, 붙임 4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진 해양대기연구본부장 ☎ 032-760-5307

강민구 홍보실장 ☎ 032-770-8631

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 032-770-8637

남극장보고기지 8.1°C “1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

월 평균기온도 최고 기록 재현... “생일(12일) 맞아 기지 역할 되새길 것”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 최고 기온은 영상 8.1도로, 지금까지 1월 중 최고 기온이던 2021년의 6.7도를 1도 이상 넘어섰다. 일 최고 기온이 7도보다 높았던 날도 1월에만 4번이나 있었다. 월 평균기온은 영하 0.3도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였던 2020년 12월과 같았다.
-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지현 장보고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 총무는 “기지 영내와 주변에 쌓인 눈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고, 특히 눈이 빠르게 녹아 건물 주변 곳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됐다”라고 현장 모습을 전했다.
- 지난달 이례적인 고온 현상의 원인으로 적은 적설량과 여름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지표면 가열, 그리고 핀 현상*을 동반하는 강풍 발생 등이 추정되며, 극지연구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핀 현상: 바람이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가 반대쪽으로 불 때,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변화는 현상.

- 앞서, 극지연구소 최태진 박사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지에서 관측한 기상 자료를 분석해, 남극 로스해 대기순환의 변화가 기지에 핀 현상을 동반하는 강풍 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겨울철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 연구팀은 로스해 대기순환 변화가 이번 여름철 고온 현상과도 관련됐는지를 포함해, 기지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 한편, 장보고기지의 최고 기온은 지난 2022년 3월 18에 관측된 8.8도이다. 당시 남극해 동쪽에 고온성 열파가 발생하면서 동남극 일부 지역에서 평년 대비 기온이 30~40도 상승하는 이상고온현상이 나타났다.
- 장보고기지는 11년 전인 2014년 2월 12일 위도 74도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문을 연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과학기지이다.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2~1월이 여름철에 해당하고 일 년 중 가장 따듯하다. 2014년 세계기상기구 정규 관측소로 등록된 이후 10년 넘게 전 세계에 기지 주변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포함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장보고기지는 비교적 온난화의 영향이 덜하다고 알려진 동남극에 있지만, 최근 단기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풍향계로서 남극의 기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되새기고, 기후 변화 대응 등 연구소에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주변 1월 모습

1. 2025년 1월의 장보고기지 주변 모습



촬영일 2025년 1월 15일



촬영일 2025년 1월 15일



촬영일 2025년 1월 15일



촬영일 2025년 1월 15일

2. 10년 전(2015년 1월)의 장보고기지 주변 모습



촬영일 2015년 1월 22일



촬영일 2015년 1월 22일



촬영일 2015년 1월 28일



촬영일 2015년 1월 19일